

국제 구리가격 급등... 전선업계, 수익성 개선 빨라진다

구리가격 t당 9000달러 육박
평가 조정 가능... 수익증대 기대
신공장 건립 등 사업 다각화 박차

전선업계가 글로벌 경기 침체에도 수익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관측이 팽배하다. 구리가격이 급등해서다. 여기에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산업 등 전선을 필요로 하는 분야의 수요 확대가 업계의 수익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분석된다.

24일 런던금속거래소(LME)에 따르면 지난 21일 기준 국제 구리 가격은 톤당 8873.5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직전 거래일보다 83.5달러 오른 수치다. 구리 가격은 연초부터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 18일에는 장중 톤당 9000달러 선을 돌파하며 지난 2023년 4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최근 구리 가격이 오르는 건 수요가 커져서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확대되는 가운데 이를 활용하기 위해 구리가 많이 들어가는 전력 공급망 구축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구리가 많이 들어가는 전기차 시장 확대도 한몫했다는 분석이 따른다. 이외에도 세계 주요 구리 광산이 잇따라 폐쇄하는 등 공급 부족 현상도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구리는 케이블 원재료비의 약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통상적으로 구리 가격의 상승은 전선업계에 호재로 작용한다. 일반적으로 공급계약을 할 때 원재료 가격에 맞춰서 판매가격을 결정할 수 있도록 '에스컬레이션' 조항을 넣기 때문이다. 해당 조항 덕에 전선업체들은 구리 가격이 오를수록 판가를 조정해 제품을 더 높은 가격에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원자재 가격 상승이 오히려 매출 상승으로 이어져 매출 증대를 꾀할 수 있는 셈이다.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판가에 적기 반영하기 어려운 다른 제조업과는 대조적이다.

특히 국내 양대 전선 기업인 LS전선과 대한전선은 대형 해외 수주가 잇따라 호황을 맞이하고 있다. LS전선은 지난 6월 덴마크 기업 CIP와 대만 평미아오 해상풍력사업의 해저케이블 우선협상대상자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프로젝트는 2027년까지 타이중 항구 근해에 500MW(메가와트) 규모로 지어진다. LS전선의 해저케이블 공급 규모는 약 1300억원이다.

대한전선은 글로벌 인프라 그룹인 발포어 비티에 3800만달러 규모의 초고압 전력망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는

영국 북부에 132kV(킬로볼트)급 신규 초고압 전력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노후된 가공선을 지중선으로 변경해 전력 공급의 안정성과 송전 용량 확대를 노린다.

실적도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 LS전선은 지난 2022년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6조6214억원, 2195억원으로 집계됐으며 지난해 3분기까지 매출 4조5743억원, 영업이익 1631억원을 기록한 만큼 무난히 매출 6조원, 영업이익 2000억원을 넘길 것으로 분석된다.

대한전선도 지난해 15년 만에 역대급 실적을 달성했다. 매출은 2조8456억원, 영업이익 784억원, 순이익 670억원으로 순이익 기준 전년도 대비 200% 이상 증가했다.

아울러 전선업계는 사업 다각화로 수익성을 확보할 것으로 분석된다. LS전선은 국내 해상풍력 사업 수주에 이어 대만, 베트남 등 글로벌 해저케이블 급성장 시장을 중심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또한 전기차용 부품 사업도 공급하는 등 신성장 동력 확보에 매진 중이다. 대한전선 또한 해저케이블 시장 공략에 본격 나서기 위해 신공장 건립을 추진하는 등 수익성 확대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차현정 기자 hyeonj@metroseoul.co.kr



부산시 금곡동에 설치된 현대차 초고속 충전 시스템 E-pit.

현대차그룹 “2025년 ‘E-pit’ 500대 구축” (초고속 충전 서비스)

국내 충전 생태계 발전 주도 방침

현대자동차그룹이 초고속 충전 시스템 구축을 통한 전기차 생태계 확장에 나선다.

24일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초고속 충전 서비스 E-pit(이피트)를 2025년까지 500대를 구축해 전기차 충전 편의성 확대에 나선다. 현대차그룹은 가장 최근 문을 연 부산 금곡동 이피트를 포함해 2024년 3월 현재 총 54개소 286기로 확대했으며 오는 2025년까지 현재 운영 중인 286기를 포함해 2021년 대비 약 600% 증가한 총 500기의 이피트 충전기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피트는 최대출력 350kW 사양의 충전기가 설치돼 있어 400V/800V 멀티 급속 충전 시스템을 갖춘 아이오닉 5를 배터리 충전량 10%부터 80%까지 약 18분만에 충전이 가능하다. 현대차그룹은 400/800V 멀티 급속 충전 시스템을 탑재한 전기차와 최대출력 350kW의 자체 충전 서비스를 동시에 갖추고 있다. 현대차 아이오닉5와 아이오닉 6를 비롯해 기아 EV6-EV9, 제네시스 GV60, 제네시스 G80 전동화 모델, G V70 전동화 모델 등이 멀티 급속 시스템을 탑재했다.

외부 환경과 차량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약 18분이면 아이오닉5 배터리를

10%에서 80%까지 충전할 수 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지난해 전체 이피트 평균 충전 시간은 18.5분”이라며 “빠르고 편리한 충전 경험을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차그룹은 이피트 외에도 2025년까지 계열사 한국전기차충전서비스를 통한 국내 초고속 충전기 3000기와 현대엔지니어링을 통한 완속 충전기 2만대를 추가 설치하는 등 양적인 측면에서 전기차 고객의 충전 접근성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충전 생태계의 ‘차충비(충전기당 전기차 수)’를 계산하면 세계 최고 수준인 약 1.85대다. 정부는 지난해 말 전국 충전기 30만5307기를 2030년까지 120만기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현대차그룹은 전기차 충전 서비스를 질적 양적으로 모두 확대해 국내 충전 생태계 발전을 주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국내 충전 사업자와의 제휴로 이피트 패스 생태계를 지속 확장해 차세대 전기차의 우수한 상품성에 걸맞은 빠르고 여유로운 충전 경험을 제공하고 고객의 충전 사용 편의성을 적극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친환경·정숙성 더해 고급화... 패밀리카 재탄생



스타리아 라운지 하이브리드

실내공간 발군... 장거리 여행 최적
'정체구간 특화제어' 등 편의성 향상

학원용, 작업용, 특수용 차량이라는 인식이 강했던 스타리아가 패밀리 차량으로 진화했다.

현대차 미니밴 스타리아의 고급 모델인 '스타리아 라운지 하이브리드'는 이 같은 이미지를 완벽하게 탈피하고 친환경과 정숙성을 더한 다목적차량(MPV)으로 탈바꿈했다. 넓은 실내 공간과 개방감을 갖춰 2열에 앉은 탑승객에게 편안함을 제공한다. 특히 장거리 여행을 즐기는 가정에는 더없이 좋은 선택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 20일 스타리아 라운지 하이브리드 7인승 모델을 시승을 통해 느꼈던 부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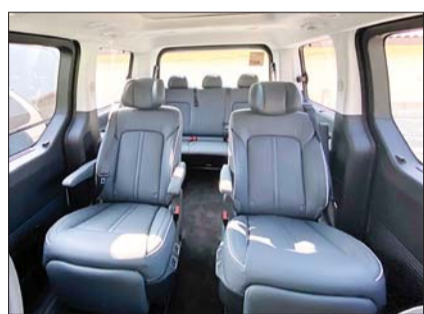
이날 시승은 현대모터스튜디오 고양을 출발해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나인블록 프로방스점을 경유해 돌아오는 약 60km 구간에서 진행했다.

우선 기차지인 나인블록 프로방스점까지는 '쇼퍼 드라이브(기사가 운전하는 차)'로 이동했으며 복귀는 '오너 드라이브(직접 운전하는 차)' 방식으로 진행했다.

쇼퍼 드라이브를 위해 2열에 탑승했다. 차고가 낮았고 슬라이딩 도어가 열리면 전동 사이드스텝이 튀어나와 아이 어린이들이나 거동이 불편한 어른들이 승하차하는데 부담스럽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다. 발을 높이 들지 않고도



현대차 스타리아 하이브리드 주행 모습.



스타리아 라운지 하이브리드 2,3열 모습 /양성운 기자

편안하게 차량에 탑승할 수 있었다.

2열 독립 전동시트는 공간이 넓고 안락했다. 키 177cm 성인 남성이 탑승해 발을 뻗어도 불편함을 느낄 수 없을 정도로 넉넉한 공간을 제공한다. 스타리아 라운지 하이브리드의 전폭은 1995mm, 전고 1990mm, 전장 5255mm, 휠베이스 3275mm로 경쟁 차종인 카니발(전폭 1995mm, 전고 1775mm, 전장 5155mm, 휠베이스 3090mm)보다 길고 높은 공간을 제공한다.

시트는 릴랙스 모드를 활성화해 45도로 눕히자 머리부터 다리까지 완벽하게 체중을 분산시켜 무중력 상태에 있는 듯한 편안함을 제공했다. 독립시

트에 적용된 팔걸이와 넓은 공간에 노면 소음도 크지 않아 마치 항공기 비즈니스 좌석에 탑승한듯한 느낌을 줬다. 다만 2열과 3열을 완전히 평평하게 접을 수 없어 차박을 즐기기에 다소 부담스러웠다.

주행 편의성도 대폭 향상됐다. 내비게이션 도로 정보를 활용한 '정체구간 특화제어' 기능은 저속 정체 구간에서 가감속 반복 시 불필요한 엔진 시동을 최소화해 준다. 또 하이브리드 모델인 만큼 실시간 연비·에너지 흐름도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연비는 만족스러웠다. 이날 도심과 고속도로 주행을 끝내고 확인한 연비는 12.6km/L로 공인 연비와 동일한 수준을 기록했다.

스타리아 하이브리드의 가격은 카고 1.6 터보 하이브리드 ▲3인승 모던 3433만원 ▲5인승 모던 3513만원, 투어러는 1.6 터보 하이브리드 ▲9인승 모던 3653만원 ▲11인승 모던 3653만원, 라운지는 1.6 터보 하이브리드 ▲7인승 인스퍼레이션 4614만원 ▲9인승 프레스티지 4110만원 ▲9인승 인스퍼레이션 4497만원이다. /양성운 기자 ysw@

SKT, 전환 지원금 상향... 최대 32만원

폴드4 구입시 지원금 최대 100만원

SK텔레콤이 프리미엄, 실속 단말에 대한 공시 지원금, 전환 지원금 상향을 통해 가계통신비 절감 지원에 나선다.

SK텔레콤은 지난 23일부터 삼성 갤럭시 폴드4, 폴드5, S23, Wide6, 애플 아이폰 14 등 10개 단말을 전환 지원금 지원 대상으로 추가하며 총 16개 단말에 전환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 기존 12만원 수준이었던 지원금도 최대 32만원으로 상향했다.

이번 전환 지원금 상향으로 이용자들은 출고가 159만8천원의 삼성 갤럭시 폴드4 일반 모델 구입 시 최대 1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SK텔레콤의 5GX 플래티넘 요금제를 가입할 때 공시 지원금 72만원, 전환

지원금 28만원이 지원된다.

SK텔레콤은 공시 지원금과 전환 지원금으로 고가 휴대폰에 대한 이용자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중저가 휴대폰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회사는 지난 16일 갤럭시 A24, 18일 A15에 대한 전환지원금 적용으로 이용자들에게 해당 기종을 '공짜폰'으로 제공한 데 이어, 23일부터 갤럭시 Wide6 모델도 추가해 적용 모델을 3종으로 늘렸다. 'T는 전환지원금뿐 아니라 공시 지원금도 확대하고 있다. SKT는 지난 15일 공시지원금 수준을 삼성 갤럭시 S24 모델은 48만원으로 기존 대비 11만원 상향하고 Z플립5 모델은 58만원으로 기존 대비 10만원 상향했다.

다만 이번에 인기 기종인 갤럭시 S24, 아이폰15 시리즈에 대한 전환 지원금은 변동이 없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